

# 전남, 장흥·강진·영암 쪼개면 '국민의당 현역대결' 불가피

〈황주홍·김승남〉

## 선거구 조정 일정과 전망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기준이 선거일을 59일 남긴 23일 결정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여야 대표의 합의에 따라 광주는 8석을 유지하고, 전남은 10석으로 기존보다 1석 줄어들게 됐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은 14만명으로 정했다. 광주의 경우 전체 의석수는 같지만 동구 인구는 지난해 10월말 기준 9만9000여명에 불과해 인구 하한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 갑·을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표심을 다지던 출마자들은 동(동) 단위로 자신의 기반을 평가하며 갑·을 간 선택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남구 인구 중 최소 4만2000여명이 동구 선거구로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남구의 최소 4개동 이상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를(29만5000여명)도 인구 상한을 넘어선 만큼 일부 동을 인접한 북구 갑에 넘기는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석이 줄어든 전남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을 쪼개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한 인구 미달 지역구인 더민주 이윤석 의원의 무안·신안(12만5000여명), 그리고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보성(11만3000여명)에 쪼개 붙일 가능성이 크다. 장흥·강진은 고흥·보성으로, 영암은 무안·신안으로 합칠 것이라는 전망이 정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경우 강진이 고흥인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과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의 '국민의당 현역 대결'이 예상된다.

인구 상한 초과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곡성은 인구가 31만명에 육박해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순천을 독립 선거구로 두고 곡성을 분리해 더민주 우윤근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구례로 넘기는 조정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선거구 분리가 확정되면 자신의 고향 곡성이 아닌 순천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이 인구 3만여명에 불과해 고흥에서 물표를 받는다고 해도 광양·구례와 합치지만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포

광주 남구 4개동 동구로 합쳐질 듯

이정현 "순천·곡성 분리 반대"

선관위 선거구 확정 작업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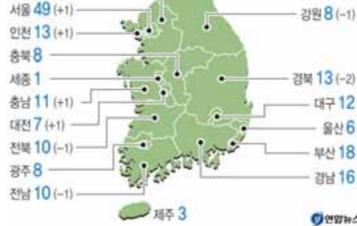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도 시작

### 제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확정 기준에 합의했다

246 ~ 253석 2015년 10월말 인구 기준(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

기준 의석 (단위: 석) 1: 현행 대비 증감수



석으로 보인다. 광양·구례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하한선을 인구 14만명으로 보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적용하면 굳이 순천·곡성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당에 지역구 분리 반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공식선거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관위 산하 선거구 확정위원회의는 당장 이날 오후 관악정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가 보내는 선거구 확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확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도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식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동시에 공식적으로 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선거구 확정 관련 회담을 열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은 이미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선거구확정의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발생 작업을 해서라도 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후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달 24~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또 다음 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4월1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3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및 거소투표용지 발송 ▲4월 8~9일 사전투표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4월13일 20대 총선의 투표와 개표를 실시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인구 기준일 왜 12월 아닌 10월로 했나”

황주홍·김승남 의원 정치적 의도 의심...조정 대상 의원들 반발

여야의 선거구 확정 기준 합의로 전남의 지역구가 11개에서 10개로 줄게 되면서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된 지역구 의원들에 반감이 깊었다. 대상자는 고흥·보성의 김승남 의원과 강진·영암·장흥의 황주홍 의원, 무안·신안의 이윤석 의원이다.

이들은 3곳의 지역구가 고흥·보성·강진·장흥과 무안·신안·영암 등 2곳으로 통폐합 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중앙선관위 선거구 확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막판까지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확정 인구 기준을 지난해 12월말이 아닌 10월말로 정한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황주홍, 김승남 의원은 인구 기준을 지난해 12월 말로 했다면 강진·영암·장흥이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면서 선거구 확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10월 말로 한 것은 '국민의당 현역 개리 싸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선거법에 인구 기준은 가장 가까운 시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에서 전남 선거 구도를 감안해 여당과 협상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합병과 통폐합을 원했던 이윤석 의원도 영암이 무안·신안과 붙을 가능성이 높게 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 경선 구도는 물론 영암을 기반으로 하는 박종영 전 전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선거 구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남 지역구 통폐합과 관련,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확정위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지역구 조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지역구 경계 조정을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과 예비 후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광주 동구와 남구가 통합, 2개의 선거구로 나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구의 어떤 동이 동구로 편입되느냐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분선동과 방림동 등의 동구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도 갑·을 지역구의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용봉동과 임동 등의 북 갑 지역구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연동형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 무산

새누리, 선거연령 인하도 강력 반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 기준에 마침내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확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이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선거구 협상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차지하게 될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의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사표(死票)'가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표 등

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선거구 협상이 논총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보완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비례대표 축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명석 중재안'과, 소수정당에 최소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도 지역구의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 또한 여당이 반대했다.

이밖에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가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선거구 확정 협상과 관계없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리아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3/29,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가세 고급 팬션 온천여행 4일 ₩49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신용카드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신선	<b>무안-장가계</b>	3박5일 ₩ 699,000 4박6일 ₩ 699,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신용카드, 가이드&기사(50%), 단체비자(₩35,000)		
품격	<b>무안-장가계</b>	3박5일 ₩1,050,000 4박6일 ₩1,0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신용카드		
고급	<b>무안-장가계</b>	3박5일 ₩1,150,000 4박6일 ₩1,1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신용카드		

**무안 - 상해, 황산, 항주 특가!!**

▶3/30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4일 ₩599,000  
 ▶3/28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5일 ₩649,000

포함 : 특전 1. 전일정 준특급호텔사음  
 2. 현지 특별식재료 [동파유, 사천요리, 삼겹살등 한식]  
 3. 발마사지포함 4. 항주서호유람선, 송성가무쇼 포함  
 5. 기사/가이드팁 포함  
 불포함 : 매니팅 및 기타 개인비용, 중국단체비자 (₩35,00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팅,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매니팅,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7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선박] 장흥-제주도 3일 ₩20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광주-울릉도 3일 ₩345,000~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45,000~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따다온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상보험:1억원, 국내보험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방버스/전지역 ▶산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기사료,선택관광,각각 비저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등에 따라 다름